

'봄날愛 전주봄꽃 힐링 여행지'

시, 동물원 · 한옥마을 · 팔복예술공장 철길 · 수목원 · 양묘장 · 항공대대 등 10곳 선정

전주동물원과 팔복예술공장 철길, 전주 항공대대 등 10곳이 봄철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전주 봄꽃 여행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봄꽃 개화기에 가볼만한 언택트 꽃나들이 여행지 '봄날愛(애) 전주봄꽃여행지 10선'으로 ▲전주동물원 ▲팔복예술공장 철길 ▲전주수목원 ▲전주 양묘장 ▲완산공원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항공대대 ▲아중호수 ▲전북대학교 ▲전주 추천대학교, 팔복동 벚꽃길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는 봄꽃 개화기에 가볼만한 언택트 꽃나들이 여행지 '봄날愛(애) 전주봄꽃여행지 10선'을 선정했다.

전주의 봄은 3월 첫 꽃망울을 터뜨리는 전주한옥마을을 경계전의 청매화가 알린다. 청매화가 개화한 이후에는 오목대의 개나리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한옥마을에서 가까운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철쭉과 겹벚꽃나무,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화려한 꽃잎을 자랑하는 나무 약 1만 그루가 장관을 이룬다.

흘날리는 벚꽃을 즐기 좋은 곳은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다. 전북대



전주시는 봄꽃 개화기에 가볼만한 언택트 꽃나들이 여행지 '봄날愛(애) 전주봄꽃여행지 10선'을 선정했다.

학교 상대 · 농대 벚꽃길은 해마다 4월이 되면 전주시민들과 재학생들이 찾아서 즐기는 벚꽃 산책길이자 숨겨진 데이트 코스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전주시민들에게도 다소 낯선 도도동 항공대대 인근은 전주봄꽃여행지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곳은 지난해 가을 코스모스가 만개했던 곳으로 올해는 유채꽃이 식재돼 봄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에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비짓전주(www.youtube.com/visitjeonju)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visitjeonjuofficial)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주꽃구경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봄꽃과 함께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주 관광트렌드 키워드를 'R.E.S.T.A.R.T.'(리스타트:위드코로나 다시 전주여행)으로 뽑았다. 'R.E.S.T.A.R.T.'는 ▲Restart: 재시작 ▲Eco-friendly: 친환경, 윤리여행 ▲Solidarity:사회적결속을 강화한 상생여행 ▲Together: 소규모 동반여행 ▲Activity: 경험 ▲Remember: 기억할만한 포토스팟 ▲Technology: 기술, 랜선 여행의 머리맡에서 땀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관광의 역사' 기획전시

한옥마을역사관, 5월 30일까지

전주한옥마을이 국가대표 여행지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유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경기전 봉심(奉審)으로부터 시작된 전주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 특질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조선시대 ▲근대 ▲현

대 I ▲현대 II ▲한옥마을 유형문화재의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시대별 관광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경기전의(慶基殿儀), 근대 사진엽서, 전주시정백서 등 관련 유물 20여 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경기전을 찾은 소감을 시로 남겼던 것에서 착안해 전주한옥마을을 관광한 소감을 적어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이번 기획전시가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현대에 복원된 우리 문화유산 소개를 통해 문화유산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서 50대 남성 장기 기증 후 영면... 4명에 새 생명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송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24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 따르면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실려 온 장재진(58세, 남)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19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다. 고인의 장기기증으로 수년간 투석을 받던 말기신장질환 환자 2명과 각각 이식이 필요한 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됐다.

가족들은 "본래 심성이 착하고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길 좋아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하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장기이식센터 이식 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송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께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초록정원사' 교육생 모집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스스로 나무를 심어 가꾸고 이웃들에게 정원문화를 전파할 초록정원사를 추가 양성한다.

전주시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원조성 관리 교육인 '2021년 초록정원사 기본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

초록정원사 기본과정은 오는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중반(공통)과 주말반(일반시민) 각 30명씩 운영되며, 교육은 사단법인 푸른전주에서 주관한다. 주중반의 경우 아파트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목요일 총 60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반은 매주 토요일 총 73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초록정원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식물관리와 정원조성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등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동물원, '사육사 진로상담 교실' 운영

전주시가 미래 사육사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돕기로 했다.

전주동물원은 날로 높아지는 동물복지와 사육사에 대한 관심과 발맞춰 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육사 진로상담 교실'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육사 진로상담 교실은 사육사가 꿈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에게 해당 2시간의 사육사 직

접촉을 제공해 사육사라는 직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육사 진로상담 교실은 지원자의 관심 동물에 따라 맞춤형 멘토-멘티의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사육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준비과정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동물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 중인 동물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줄이

기 위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3월 중 전주동물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관련 SNS를 통해 운영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850918h@korea.kr) 또는 전화(063-281-6750)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동물원은 이번 사육사 진로상담 교실 운영을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 관련 직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전주시, 좌식·입식테이블·주방 위생설비 교체 등 최대 700만원

전주시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바꾸거나 객석·조리장·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개선에 나서는 음식점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려 안전한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 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20개 업소로, 식품접객업을 5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주요사업 내용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경우 ▲후드, 화구, 환풍시설, 바닥 등 주방 위생설비 교체 ▲객실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테이블 간 방역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도 필수사항이다. 시는 선정된 업소당 시설개선 사업비용의 70%까지 최대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한 후 전주시 환경위생과(현대해상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